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들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성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C.T. 스테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큰 성에 살았고 캠브리지 7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위해 살다가
아프리카의 한 움막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보십시오.
그는 최초로 인도로 들어가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아드니람 저드슨,
그는 미국 사람인데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심었던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 하용조